

# 기혼남성의 가족생활실태와 일·가정 균형

## - 울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이하의 첫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

이 미 진(울산대 석사과정)

2010년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공평하게 가사분담을 하는 가정은 10쌍 중 1쌍에 불과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응답자의 86.3%가 가사를 부인이 주도한다고 응답하였다. 81.5%의 남성이 맞벌이를 원한다는 응답과 사뭇 대조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은 경제적 부양자이외에 아버지역할, 배우자역할, 가사노동분담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도 그러하며, 맞벌이가 많은 요즘 가사와 돌봄은 이제 더 이상 여성 혼자 몫이 아니며 남성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 직장에서의 야근문화, 회식문화 등의 이유와 사회전반에 걸친 인식의 문제에 있어 여전히 여성에게는 이중노동으로 성적 불평등을 남성에게는 가족에서의 소외의 문제로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가정 내 아버지, 혹은 남편의 부재로 자녀교육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출산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기혼남성의 가족 참여와 몰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아버지역할은 자녀에게 그리고 한 가정의 일상적인 건강성 유지에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부성, ‘아버지됨’ 그리고 아버지역할은 남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핵심적이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가족생활실태를 아버지 역할, 배우자역할, 가사노동 분담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 빈도, 내용, 평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고, 일·가정 균형과 어떠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빈도, 평균, 백분율,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사후분석, 그리고 신뢰도를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해 보았다.

2010년 7~8월 중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울산시에 거주하는 기혼남성 30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관련한 시간은 평일 평균 1시간53분, 주말 평균 5:48분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역할과 관련한 시간은 평일 평균 1시간 39분, 주말 평균 4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 시간으로는 평일 평균 25분, 주말 평균 1시간 21분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실태의 일반적인 경향을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아버지역할은 평균 3.66, 배우자 역할은 3.63, 가사분담은 3.00으로 기혼남성은 아버지역할, 배우자역할, 가사분담 순으로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균형은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 3.61이며, 일·가정 성공 중요성에서 가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실태와 일·가정 균형 간 교차분석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역할, 배우자역할, 가사분담과 일·가정균형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역할을 잘하는 집단, 배우자역할을 잘하는 집단, 가사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이 일·가정균형을 잘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가족생활실태 내에서도 아버지역

\* 송혜림 외(2010) 남성 대상 가족친화 프로그램개발

할을 잘하는 집단이 배우자역할이나 가사분담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부모동거여부와 본인 월소득, 직업, 직종, 근무탄력성, 업무시간, 휴일근무시간, 회식모임 횟수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일·가정균형을 위해 개인의 인식개선과 실천과 더불어 기업은 가족친화적 기업, 국가는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 지역사회 또한 가족친화마을로 거듭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주의 인식의 변화 및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아버지의 가족생활실태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균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아버지교육이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